

메르스, 꼭 알아야 할 10가지

[자료제공 : 중앙메르스대책본부]

1. [정의]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.

2. [증상] 발열, 기침,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꺼움, 구토, 설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3. [전염] 증상은 감염 후 최소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,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
4. [전파] 일반적으로 2m 이내에서 기침, 재채기를 할 경우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됩니다.

5. [예방] 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,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, 코,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,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,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여야 합니다.

6. [자가격리]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,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에 연락하고 가족과 주변사람을 위해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.

7. [진료] 환자와 밀접 접촉을 하였거나,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.

8. [진단] 메르스는 가래, 기관지 세척액의 유전자를 검사(RT-PCR)하여 진단합니다.

9. [치료] 환자는 증상에 따른 치료를 받게 되며, 중증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, 혈액투석 등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.

* 증상과 발열이 48시간 이상 없고, 유전자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인 경우 퇴원

10. [장비] 의료진은 손씻기, 일회용 가운과 장갑, N95 마스크, 눈보호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.

평택성모병원 위험기간 노출자 전수조사 안내

(자료제공 :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☎ 044-202-2505)

- 최근, 메르스 환자가 확산됨에 따라,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는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평택성모병원을 위험시기에 방문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아 추적관리가 누락된 접촉자를 발굴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.
- 5.15일부터 29일 사이에 어떤 이유로든 평택성모병원을 방문한 모든 사람은 6.6일(토) 09시부터 경기도 콜센터(Tel. 031-120) 보건복지부 콜센터(Tel. 129)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(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도 이용 가능)
 - 이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기에 평택성모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감염 가능성이 없어 해당하지 않으며, 평택성모병원과 관련이 없는 사람도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- 신고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건강상태 확인, 병원방문 이력 확인 등 문진을 실시하고,
 -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인력이 출동하여 임시격리병원으로 이송하고 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며,
 - 증상이 없는 경우 병원을 방문한 날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*를 조치하고, 이 기간간 증상이 벗는 경우 자가격리를 해제할 예정입니다.
- 상기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고를 해서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 - 일반 국민 여러분들도 각자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키되, 지나치게 과도한 걱정으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대처를 당부드립니다.

* 붙임) 메르스 감염 예방 기본 수칙,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